

텔레비전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과정 비판한 버밍엄학과

영국 버밍엄학파의 텔레비전론

성동규 | 중앙대 신방과 교수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산업화를 거친 영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형성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가장 먼저 일어났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식 상업문화가 몰려들고 영국의 노동계급이 점차 세련된 미국식 상업문화에 물들어가는 현상을 학자들이 접하게 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호가트와 윌리엄스, 버거, 톰슨 등이 영국문화와 TV를 연구하게 된다.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초점 맞춰 연구해

이들의 문화연구 활동은 1965년 버밍엄대학에 호가트가 설립한 현대문화연구센터

(CCCS)에 의해서 통합된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1957년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창간된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가 대표적이며, 60년대 이후에는 홀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를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기조로 현대 대중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집중했다. 즉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성에 주목하면서 특히 현대문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TV의 이데올로기 재생산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윌리엄스는 문화연구 발달에 가장 많이 기여한 학자로서, 기존의 유물론적 논의 방식에서 탈피해 '문화유물론'을 제창했다. 이 주장은 문화가 물질 생산이며 실천이라는 의미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에서 논하는 상부구조의 실천성을 논의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문화와 사회》(1958)와 《장구한 혁명》(1961)을 통해 문화 기구들의 이데올로기 작용과 담론뿐만 아니라 미디어 가운데 TV를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윌리엄스는 《텔레비전: 테크놀로지와 문화 형식》(1974)에서 TV 프로그램의 내용 연구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기술적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TV의 독특한 형식을 결정하는지 분석했다.

한편 홀은 현대 문화연구의 대표주자로 상징되는데, 1969년에 CCCS의 소장을 맡은 이후 CCCS의 이론적 기반과 학문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다. 이 시기에 그는 그람시에게서는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재생산 방식에 대해 영감을 받았고, 알튀세르에게는 물질성을 지닌 이데올로기의 작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대중문화의 형성과 재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이 가운데 무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TV의 영향력과 효과 분석을 큰 화두로 삼았다. 홀은 《민중 예술》(1964)에서 대중문화 형태의 속성 문제를 제시했으며, 논문 <매체로서의 텔레비전과 문화와의 관계>(1973)에서 TV를 통한 예술과 문화의 대중화를 분석하고 비판했다.

무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TV의 영향력 분석해

피스크는 스투어트 홀과 더불어 문화연구를 대중화시킨 이론가다. 그는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을 두루 섭렵하고, 이를 통해 미국식 실증주의의 관점과 유럽식 비판연구 관점을 적절히 접목시키고 있다.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그의 문화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는 CCCS의 기본적인 학문 토대인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바탕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진행해나갔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그는 TV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기호학적 측면과 비판커뮤니케이션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증적 연구까지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영국의 버밍엄학과를 기점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문화연구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토대를 통해 후기 마르크스주의인 알튀세르와 그람시의 발전된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비판 사회학의 토대를 완성시켰다. 그들은 시간적 궤적을 통해서 유럽적인 학문풍토에 미국적인 실증주의적 연구 형태를 융화시킴으로써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발전된 문화연구 형태로 TV의 문화 재생산 과정을 비판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TV라는 매체를 기술적 산물이 아닌 사회적 산물로 규정하고 이를 TV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작용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오늘날의 확산된 문화연구를 꽃피운 산파역할을 한 것이다. ■

성동규 교수는 현재 중앙대 신방과 교수이자 신문방송대학원 원장보,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로 재직중이다.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시대의 방송산업> 등을 펴냈다.